

##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추천' 논란에 "공정한 수사 아닌 정치특검 자백"

▶ "어떤 밀약, 지분 논의도 없어...우당에 대한 예의 지켜달라"  
민주당, 10일 의총 예정...정청래, 당원 의견 반영해 입장 발표할 것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 인사 검증에 둘러싼 논란 끝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특검 후보 추천 기준은 이 대통령 심기였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의 특검 후보는 다른 아닌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쌍방을 즉 전준철 변호사"라며 "대통령이 불패감을 드러냈다고 알려지자 친명계는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정 대표를 공격했고, 정 대표는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을 밀어붙이고도 모자라 2차 종합특검까지 강행하더니 민주당 스스로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

검이 아니라 정치 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말로는 특검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성이라 외치면서 정작 후보 추천 기준은 이 대통령의 심기였던 말이나"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은 국회의 원도, 장관도, 금감원장도, 유엔 대사도 되고 요직을 다 꿰차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을 변호한 것이 공직 결격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 꽃은 뭐라고 해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책을 낱가롭게 검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추진 정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야당 시절처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하고 근거 없는 정쟁 발언은 하지 않겠다. 민생과 국익을 걱정하는 국민

을 대표해 책임 있는 대정부 질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무엇보다 걱정하는 건 관세 재인상으로 대표되는 한미 관계와 부동산 집값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국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안했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위원회' 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며 "대미투자특별법뿐만 아니라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등 한미 관계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정부여당에 전달하고, 정부는 진솔하게 이를 설명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중립적이어야 마땅함에도 대통령은 오직 나를 지켜줄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공격할 사람인가라는 잣대 하나로 특검을 낙점했다"며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안위와 반대 진영 숙청을 위한 졸개일 뿐"이라고 썼다.

이채봉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모집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접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두 달간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도와 국내 기업의 제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 의약품, 종자, 시

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공사는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설루션 도입과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총 2억 5천만 원 내에서 2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최대 2억 원(지원 비율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 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사업 참여 기업에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9일 17시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박미란 스마트기술처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농산업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혁신을 이루고, 이를 발판 삼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 한화생명, 암 경험청년 위해 기부금 1억 원 전달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 '다정한 속도' 통해 기부금 1억 원 조성



한화생명이 암 경험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대한암협회에 전달했다고 9일(월)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6일(금)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으며, 한화생명 임석현 기획실장과 대한암협회 이만혁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까지 진행된 사회공헌 캠페인 '다정한 속도'를 통해 조성됐다.

이는 암 치료 이후 학업과 취업, 사회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

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화생명은 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객이 캠페인 페이지에서 응원 클릭에 참여하거나 다이렉트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이에 맞춰 회사가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암을 경험한 청년들이 콘텐츠 제작과 홍보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메시지를 전하며 공감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캠페인에는 총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였던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참여 규모는 목표 대비 340%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기부금 1억 원을 목표액 100%로 달성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대한암협회를 통해 2030 암 경험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WE CARE, RESET' 사업에 전액 활용될 예정이다. 신체 심리 회복 지원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암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숨겨져 할 경험'에서 '함께 이겨내는 경험'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임석현 기획실장은 "세계 암의 날(2월 4일)을 맞아 고객과 임직원의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을 암 경험청년에게 전달하게 되어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암 경험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ESG 상생 성과로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4년 연속 ESG 평가 최고 등급(AA) 달성 역량 확산, 혁신 물기업 성장 마중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유석재)는 2월 9일 대전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창업지원공간 W-브릿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동반성장 의욕 고취와 지속 가능한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대표 우수사례에 시상한다.

한국수자원 공사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AA)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ESG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역량이 물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SG 경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 조달과 금융·투

자, 공급망 관리 등에서 기업 전반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이번 수상은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ESG 진단 및 지표 설정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현장 개선 지원 등 물 분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체

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62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60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 이자 감면, 수출 및 기술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상생협력 노력의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협력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후테크 생태계 전반의 상생과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롯데웰푸드 '식사이론', 백년가게와 첫 상생 제품 2종 출시

▶ 광주 5미를 대표하는 떡갈비 맛집의 노하우를 담은 '형제송정떡갈비'  
인천 신포국제시장의 명물 '신포아채치킨'의 맛을 구현한 '신아치킨 닭강정'



롯데웰푸드의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과 '백년가게'의 상생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컬래버 제품 2종(형제송정 떡갈비, 신아치킨 닭강정)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지난해 3월 체결한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상생 협약을 본격화한 첫 성과다.

광주 송정리에서 3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형제송정 떡갈비의

레시피를 담은 '식사이론 X 백년가게 형제송정 떡갈비'는 100%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고단백 떡갈비 제품이다.

두 번 숙성한 양조간장을 사용해 깊고 진한 풍미와 감칠맛을 살렸으며, 인공 불향 없이 맛화로 구워 풍부한 육즙을 구현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의 대표 백년가게 신아치킨(신포아채치킨)의 노하우를 살린 '식사이론 X 백년가게 신아치킨 닭강정'은 100% 닭다리살을 국산 양파와 마늘로 엄지숙성에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살렸다.

특제 닭강정 소스를 사용해 30년 노하우 레시피를 그대로 담았으며, 이중 후라이 공법을 적용해 전자레인지 조리해도 튀김옷이 살아 있는 식감을 구현했다.

백년가게 상생 협업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

력을 통해 '백년가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공식 인증한 점포를 말한다.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온 소공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소공인을 의미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백년소상공인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맛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품질과 원재료 경쟁력을 강화한 냉동 간편식 제품을 지속속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 하이트진로, '26년 첫 사회공헌'설 명절 밥차 한상 나눔' 실천

서울 인천 광주 여수 등 전국 6개 지역 취약계층 무료급식 밥차지원



하이트진로(대표 장인섭)가 설 명절을 맞아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밥차'에 식재료를 지원했다고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서울·인천·광주·여수·김해·대구 등 전국6개 밥차 운영 기관에 쌀과 식용유 약 60,000 인분과떡국떡, 전 3종으로 구성된 명절 음식 약 3,000인분을 지원했다. 각 기관 밥차 운영 일정에 맞춰 2월 12일부터 하이트진로가 마련한 '명절한상'으로 제공된다.

2026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 명절 나눔은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무료급식 현장을 고려해, 설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쌀과 식용유를 함께지원했다. 또 명절 기간 결식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떡국과 전으로 구성된 한상을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야배'를 통해 물품을 구성해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흑석동에 위치한 원봉공회 밥차에서 하이트진로 관계자 비롯해 원봉공회 강우희 상임이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철호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나눔 전달식이 열렸다.

올해는 하이트진로 발표주 브랜드 필라이트의 캐릭터 '필리가' 사회공헌 캐릭터로 활약할 예정이다. 착한 가성비 이미지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공헌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장인섭 대표는 "2026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의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설추·석명절에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2012년부터 15년째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